

2019 Winter Vol.77

Into the village



지구촌나눔운동
겨울호 소식지

 지구촌나눔운동
Global Civic Sharing

Contents

- 03 포토에세이
따뜻한 동네 자르갈란트
- 04 현장이야기 특집1
단절된 아픔에 새로운 희망을 잇는 주민들
- 08 현장이야기 특집2
우리 함께라면, 하쿠나마타타!
- 12 본부이야기
신뢰를 기반으로 건강하게
옳은 길로 나아가는 과정
- 14 GCS News
- 18 비하인드 스토리
장애인 지원 사업 담당자를 만나다
- 19 모금캠페인
자립을 수놓은 착한 달력
- 20 후원신청서
사람을 생각하다, 변화를 바라보다.



따뜻한 동네 자르갈란트

글 모금홍보팀 김자원 간사

어김없이 찾아온 몽골의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지만 주민
들의 미소는 마치 봄처럼 따뜻하기만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고 따듯
한 수테차 한 잔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때
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이 느껴집니다.

집집마다 따스한 온기로 가득한 자르갈란트 마
을. 이곳이 오래도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촌나눔운동 케냐, 태국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사업이야기를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단절된 아픔에 새로운 희망을 잇는 주민들

현장이야기 특집1_미얀마-태국 국경지역 카렌주 장애인 의족지원 사업

미얀마-태국 국경지역에 위치한 카렌주에는 작은 희망제작소가 있습니다. 긴 내전과 수많은 지뢰 피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지뢰 피해자와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곳. 바로 '끌로요레 의족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뢰 피해 환자들을 위한 의족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뢰 피해 환자들을 위한 작은 희망제작소
 끌로요레 의족지원센터에는 3명의 기술자와 1명의 현지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주하며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메따오 클리닉, KDHW, 백팩, DMA 등 국경 지역의 의료 관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8개월 과정의 의족 제작기술 훈련 수료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카렌주 파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뢰 피해자와 기타 질병으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151명을 지원했습니다. 의족지원센터의 기술자인 쏘꺼무 씨는 본 사업을 통해 의족을 지원받은 참여자이며, 2015년 메따오클리닉을 통해 의족 제작기술 훈련을 받은 이후 지뢰 피해 환자들을 위한 의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선, 같은 마음으로

"기술 훈련을 수료했지만,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어요.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현실도 녹록지 않고요. 하지만 기술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끌로요레 의족지원센터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를 포함해 기술 훈련에 참여한 3명의 훈련생들이 의족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센터에 소속된 이후 서로가 가진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며, 환자에게 꼭 알맞은 의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더욱 충실히 제작에 임하려고 합니다."

더욱 가까워진 희망

"의족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 기존에 사용하던 의족이 부서져서 새로운 의족을 전달받는 사람 모두 의족이 자신의 몸에 길들여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의족지원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환자들은 의족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먼 거리를 오고 가며 불편을 느꼈어요. 비용도 들고요. 방문 자체가 힘든 여정이다 보니 환자들은 집을 떠나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러나 센터 건립 이후 가까운 곳에서 지원 및 수리를 받게 되니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환자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건물이 하나 지어졌을 뿐인데 지역주민 모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족을 제작하는 3명의 기술 직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장애인이다 보니 환자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저는 계속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나눠주고 싶어요."

본 사업을 통해 미얀마 카렌주 지역 장애인들이 사회, 경제, 심리적인 역량이 강화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장애인 의족 지원하기 ▶ 

“ 참여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

- 끌로요레 의족지원센터 기술자 쏘꺼무 씨

우리 함께라면, 하쿠나마타타!

현장이야기 특집2 케냐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하쿠나마타타는 스와힐리어로 '문제없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2월 3일, 지구촌나눔운동 케냐 사업소는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캠페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아신 기슈 지역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하나되어 진행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축제 현장과 같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해를 넘어 이해로

여러분은 평소 장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편견과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케냐 사업소에서는 이웃 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캠페인 시작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앞선 글쓰기 대회에서 훌륭한 에세이로 모두를 감동하게 만든 피터 학생이었는데요. 피터는 "오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행사 주제인 'The future is accessible'이라는 주제에 대해 "장애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인식개선에 대해 친구와 주변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며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의 첫 순서로 장애이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인식개선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각, 청각, 신체장애 역할극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활동에는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한 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같이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라며 이 행사가 개최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

- 캠페인 참여학생



무엇보다 이번 캠페인의 대미를 장식한 활동은 퀴즈쇼였습니다. 퀴즈쇼에는 지난 9월 학교 방문 장애인식교육을 통해 선발된 50명의 우수 학생을 포함해 159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학생들의 열기가 가득했던 퀴즈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오해 등을 없애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OX 퀴즈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장애인식에 대한 기초 지식을, 두 번째 순서에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장애예방, 장애인의 권리 및 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하였는데요. 치열하고 열정적이었던 퀴즈쇼를 통해 3명의 우수 학생이 선발되었고,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1년 치 학비를 장학금으로 수여했습니다. 시상식 마지막에는

4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라와 퀴즈쇼에 참여하며 느낀 소감을 나눴는데요. 답변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어우러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작은 움직임으로 만드는 변화

2018년도부터 시작된 장애인식개선 사업 이후에 우아신 기슈 지역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정부에서는 장애인 지원과 관련 담당 기관을 만들어 장애인식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인력과

지원 또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져오는 가운데 지구촌나눔운동은 다가오는 2020년에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건강하게 옳은 길로 나아가는 과정

본부이야기_2019 조직변화실험실

올해 초, 지구촌나눔운동은 서울시 NPO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조직변화실험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활기찬 일터 우리가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6개월 간의 조직변화실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조직변화를 위한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우리 조직의 고민 중 하나는 조직문화였어요. 기존에는 살짝 조직문화가 경직돼 있고 각각의 일에만 집중하는 날도 있었어요. 경직된 문화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망설이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업무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다 같이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고 건강한 문화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에게 조직변화실험실은 신뢰를 기반으로 건강하게 옳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실험 목표도 이 맥락 안에서 진행하려 했습니다.

활기찬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조직문화가 바뀌는 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조직문화가 바뀌어 가는 데는 '구성원의 변화'가 일부 작용했어요. 거기에 실험실을 통해 하고 있는 시도들이 더해져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어요. 특히 실험 중 하나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유연근무제는 '신뢰기반'이 핵심이거든요. 서로 믿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실험을 지지해 준 리더십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신뢰기반의 유연근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는 유연근무제는 시간을 중심으로 나뉘는 룰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코어 시간'을 지키고 그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거죠. 실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정을 만들어 나갔어요. 업무량이나 강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되었고, 어떤 직원은 일과 삶이 분리되어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경직됐던 분위기에서 유연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유연근무제는 직원 만족도가 높아 2020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에요.

“ 조직변화실험은 계속되어야 하는 ing, 즉 현재진행형이에요. ”

- 지구촌나눔운동 경영지원팀 김영경 팀장



업무 공유를 위한 직무분석, 어떤 부분을 고려했나요?

야근을 많이 하는 직원도 있고 정식 퇴근이 가능한 분도 있어요. 업무량의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또 팀원과 팀장 역할에 대해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직무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어요. 직무분석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과 다른 구성원의 일을 구분하거나 이를 넘나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직무분석의 정돈나 방향을 조정하고 있고,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있어요.

이번 실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것이나 성과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구성원들 간에 상호 인터뷰를 해본다거나 레고 등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워크숍도 진행했어요. 부서 간 소모임도 하며 구성원들 간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이 확보하려 했죠. 덕분에 직원들 간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봐요. 예상치 못한 성과들도 있었는데요. 연차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제도를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게 되었어요. 조직 내부적으로 더 밝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구촌나눔운동에게 조직변화실험실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지구촌나눔운동에게 조직변화실험실은 계속되어야 하는 ing, 즉 현재진행형이에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지속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조직변화실험을 할 때엔 목적을 계속 상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험이 익숙해지고 보니 어느 순간 실행하는 것에 급급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조직변화실험실은 내부에서 시작된 목소리를 시작으로 용기 낸 발걸음이었는데요. 지구촌나눔운동이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GCS News

몽골 10.01.~10.31.
축산협동조합 3기 조합원 추가모집

태국 10.01.~11.30.
장애인 의족 지원

동티모르 10.01.~11.30.
배움센터 독서장려프로그램 진행

에티오피아 10.07.
HAPO Korea Charity Association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베트남 10.08.
까오방, 희망마을사업 2단계 사업 MOU
체결(2019-2022)

베트남 10.10.
하노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
기공식 진행

르완다 10.10.~10.15.
자조그룹 소액대출 수여식

동티모르 10.21.~10.25.
교사역량강화 2차 워크숍 진행

미얀마 10.22.~10.23.
2019년도 어업대출 및 가축대출 실시

<에티오피아> 10.07.
HAPO Korea Charity Association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지구촌나눔운동은 10월 7일, 2012년 설립되어 다양한 교육 및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해 온 HAPO Korea Charity Association과 에티오피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에티오피아 마을 협동조합 역량강화 사업을 공동 수행하며 불차나, 갈로, 세레라 마을의 종자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의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르완다> 10.10.~10.15.
자조그룹 소액대출 수여식



르완다 사업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3회에 걸쳐 9개 자조그룹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수여식을 진행했다. 르완다 사업소는 매년 우수한 사업 제안을 작성한 자조그룹을 선정하여 저리의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소액대출금을 지원받은 그룹은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맞게 가축 구입이나 농사, 도소매업을 시작하며 소득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케냐 10.22.~10.24.
2018년 사업 자금 지원 장애인그룹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

태국 10.29.
2차 영농현금/현물 대출 진행

본부 10.30.
제 56차 임시이사회

미얀마 10.30.~10.31.
농촌지역 여성 가장 대상 가축교육 실시

베트남 11.05.
바리아-붕따우, 삼성엔지니어링 희망도
서관 개관

동티모르 11.07.
마을기업 전통주 나누우에, 소모초 마을
모니터링

태국 11.08.
2차 리더십교육 진행

베트남 11.11.
하노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사우나
2개 신축

<케냐> 10.22.~10.24.
2018년 사업 자금 지원 장애인그룹
모니터링 및 현장지도



케냐 사업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18년 소득증대 사업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5개의 장애인 그룹 중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3개 장애인 그룹을 방문하여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를 진행했다. 한 그룹은 매주 회의를 통해 성과와 계획을 공유했으나 나머지 두 그룹은 공통적으로 그룹 리더와 구성원 간의 소통 문제와 자금 관리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케냐 사업소는 구성원 간 소통을 촉진하고 향후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미얀마> 10.31.~11.01.
농촌지역 여성 가장 대상 가축교육 실시



미얀마 사업소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야마웅, 아세웨다우, 요와 지역에서 가축교육을 실시했다. '미얀마 영세농가 대상 자립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소외계층 대출 프로그램 참여자와 가축에 관심이 있는 마을 주민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종닭 사육 시스템 구축'과 '마을 단위의 돼지 사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마을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용할 예정이다.

베트남 11.12.

타이응우옌, 희망마을사업
마을개발프로젝트 1단계 사업 평가회

베트남 11.18.~11.21.

하노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
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케냐 11.19.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자원봉사자 소집교육

에티오피아 11.22.

리더십 교육, 협동조합 운영 교육 교안
개발 회의

미얀마 11.22.

마을발전위원회 수익금 이양 MOU 체결

동티모르 11.26.

교사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간 평가회 진행

르완다 11.28.

'가족 갈등 예방' 인식개선캠페인 실시

동티모르 12.01.~12.31.

배움센터 건물관리위원회 운영회의 진행

<베트남> 11.05.

바리아-붕따우, 삼성엔지니어링 희망도
서관 개관



베트남 사업소는 11월 5일,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성 내 롱손꼬문 밧당(Bach Dang) 중학교에서 '삼성엔지니어링 베트남 희망도서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번 희망도서관 사업을 통해 붕따우 지역 3개 학교를 대상으로 넓은 도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각 학교에 7,000여권의 도서와 함께 책상, 컴퓨터, 에어컨 등 기자재를 기증했다. 또한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수개선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베트남> 11.18.~11.21.

하노이,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직원역량강
화교육 실시



베트남 사업소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직원 2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 한국에서 3명의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재활치료, 심리치료, 인권-평화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실습 위주의 교육에 크게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몽골 12.01.

축산협동조합 유가공공장 가동 시작

케냐 12.03.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베트남 12.04.

타이응우옌, 희망마을사업
마을개발프로젝트 2단계 사업 착수

동티모르 12.04.

배움센터 도서관 개관

미얀마 12.07.

흘라잉따야 타운십 양로원 완공식 진행

르완다 12.10.

5기 문해교실 수료식

본부 12.16.

서울시NPO지원센터 '조직변화실험실'
원주회 참석

본부 12.19.

2020 KOICA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종합설명회

<동티모르> 11.26.

교사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간 평가회 진행



동티모르 사업소는 11월 26일, 로스팔로스 배움센터에서 교사역량강화 워크숍과 연간 평가회를 진행했다. 올 한 해 동안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코니스, 레레, 라우렘 고등학교 교사 53명을 대상으로 교수법 강의를 진행했으며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평가회를 끝으로 올해 계획한 프로그램은 모두 마무리 됐으며, 향후 배움센터 도서관 도서 대출과 운영 규정 정비 등 활동을 이 어갈 예정이다.

<몽골> 12.01.

축산협동조합 유가공공장 가동 시작



몽골 사업소는 12월 1일, 축산협동조합의 유가공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유가공공장 운영을 위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조직된 3개의 협동조합이 모여 공동조합을 조직했다. 유가공공장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판매 수익 배분을 통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조합원들은 유가공공장을 통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유가공 및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Behind story

장애인 지원 사업 담당자를 만나다. 우승훈 대리, 이한솔 간사 짝막 인터뷰



우승훈 대리



이한솔 간사

장애인 지원 사업은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우승훈 참여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장애인이 참여하는 교육의 경우, 사전에 교육 장소에 방문해서 교육장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요. 경사도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 경사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 교육마다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의 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솔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진행돼요.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자 양성, 인식개선 캠페인과 같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승훈 이한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 앞으로도 함께 차별과 편견을 허물어 나가요! '트웬데 파모자!' '어뚜두 또아자소!'

본부와 현장을 오고가며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승훈 현지 사업소와 전화나 메일로 소통하며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참여자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참여하는지 함께 느낄 수 있어요.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동료들과 사업 참여자, 파트너들에게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한솔 현장에서 느낀점을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미얀마 내에서도 내륙지역과 국경지역은 다른 모습이거든요. 각각 어떤 모습이 다른지, 주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실제 현장을 방문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 이전보다 높아졌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트웬데 파모자는 스와힐리어로, 어뚜두 또아자소는 미얀마어로 '함께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립을 수놓은 착한 달력을 통해 희망을 선물합니다.

자립을 수놓은 착한 달력으로 지구촌 가난한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판매 수익금은 스리랑카 어머니들의 임금과 르완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우정도서관 지원에 사용됩니다. 앞으로도 지구촌 이웃의 자립을 위한 의미있는 공익상품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